

현대 중국의 국가에 대한 태도: 팬덤 애국주의와 ‘백지시위’의 사례*

이용철**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국가에 대한 불만과 항의: 코로나19와 백지시위 |
| II. 자신감과 불안함: 중국 애국주의의 배경 | V. 자격증명으로서의 애국주의 vs. 국가 가치에 대한 질문 |
| III. 애국주의 활동과 국가의 시각화: ‘오빠 차이나(oppa China, 阿中哥哥)’의 사례 | VI. 나가는 글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최근 중국의 애국주의 활동과 백지시위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중국에서 국가에 대한 태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애국주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대중문화 팬덤에 익숙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아이돌화한 팬덤 애국주의가 있었다. 이들은 국가를 미소년의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대중문화 팬덤의 방식을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팬덤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한 비판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팬덤 애국주의는 쇠퇴하였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우루무치에서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난징,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추모집회가 열렸고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시위 참여자들은 도시들에 대한 봉쇄조치와 그로 인한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국가를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애국주의는 ‘애국하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 본 연구는 2022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타자'를 구분하는 자격증명의 역할을 한다. 한편 백지시위는 국가가 애정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 '조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정당한 것인지 질문한다. 양자 모두 '좋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무엇이 '좋은 국가'인지에 대한 지향은 상이하다.

국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태도들이 있고 이것이 불균형적이기는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동력이 변화를 견인하는 힘이 될 것이다. 현대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팬덤 애국주의, 백지시위, 코로나19, '오빠 차이나', 정동

I. 들어가는 글

미국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던 2022년 8월 2일 전후 『런민르바오(人民日報)』와 같은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이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였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과,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난 이후 며칠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에워싸고 실탄 사격 훈련을 지속하였고 중국의 매체들은 이를 마치 스포츠 행사 실황중계 하듯 보도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 기사들에는 “조국통일!”이라는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불편함을 보인 것은 매체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상하이에 있는 나의 중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위챗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토끼를 키우고 여행을 좋아하는 C,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20대 X, 요리를 좋아해 음식과 케이크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나눠주던 보험설계사 G를 포함하여 여러 중국인 친구들이 위챗 모멘트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거나 “조국통일” 등의 캡션을 달아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의 화면을 거의 밤새 캡처해 올렸다. 그들이 대만에 도착하는 펠로시의 비행기 궤적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에 미국이 ‘침범’해 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험설계사 G는 공산당원이어서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군기념일에는 “천지의 영웅이자 민족의 중추인 조국이 있어 가족과 국가는 영원할 것”이라는 글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는 대회 소식을 알리는 종이신문 사진 등을 올리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저 케이크와 음식 사진, 보험의 중요성을 알리는 광고 내용, 퇴근길 차가 막혀 답답하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평상시에는 위챗에 거의 일상생활만 올리곤 했었는데 그날만은 마치 모두가 ‘조국통일’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다음날 출근 걱정도 뒤로 한 채 새벽이 다 될 때까지 모멘트에서 소식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10월 13일 베이징의 쓰통차오(四通橋)에서는 “PCR 검사가 아니라 밥이 필요하다(不要核酸要吃飯),” “봉쇄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가 필요하다(不要封控要自由),” “문혁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不要文革要改革),” “지도자가 아니라 투표가 필요하다(不要領袖要選票),” “동맹휴업과 파업을 하고 독재자, 국가의 적 시진핑을 파면하자(罷課罷工罷免獨裁國賊習近平)” 등의 플래카드를 건 기습시위가 있었고 베이징 중국영화자료관 남자 화장실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크게 ‘독재 반대, PCR 검사 반대(反獨裁, 反核酸)’라는 낙서를 해 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¹⁾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상하이, 난징, 베이징,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중국 곳곳에서 손에 백지를 들고 “공산당 물러나라(共產黨下台),” “시진핑 물러나라(習近平下台)” 등 이전에는 듣기 힘들었던 강경한 구호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한동안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중국의 강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는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던 한국에서도 동북공정과,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커졌다.²⁾ 2021년 5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는 중국

1) 韓大狗 (2022), “北京四通橋抗爭: “有聲音”比“大多數”更有質的意義”,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019-opinion-china-stonebridge/>. (2023년 7월 20일 검색)

2) 2000년대 초반 한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였다(김희교 2022, 69).

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온도가 각각 26.4, 26.3으로 북한이나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으며 특히 20대는 중국에 대해 매우 극혐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³⁾ 2023년 한국 2030세대의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⁴⁾ 중국에 대한 혐오의 배경에는 한국의 차별적 태도(정희옥 2022)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과도하게 드러내는 자국 중심 시각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도 있다. 최근 블랙핑크의 베트남 공연을 앞두고 공연 기획사가 중국의 구단선이 포함된 남중국해 지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베트남 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중국 중심 사고에 대한 반발의 사례이다.

한때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강력한 원인이었던 강한 애국주의와 중국인들의 강경한 태도는 지금도 여러 사례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가을부터 중국에서 등장한 크고 작은 시위들은, 애국주의가 중국의 유일한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시위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 차례의 도시봉쇄[封城]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다. 도시봉쇄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 그간 누적된 여러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절반의 기대와 절반의 실망이 결합된 분노가 백지시위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 글은 현대중국의 애국주의 활동과 최근 백지시위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중국에서의 국가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한 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와 현재까지의 애국주의 활동들 중 일부와 상하이에서의 백지시위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해보고 현대 중국인의 삶에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의미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부상, 점점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변해가는 듯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등을 다룬 연구와 책은 매우 많다(도시 2022; 한청훤 2022 등). 한편 일부에서는, 중국이 실제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보거나(삼보 2014),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부 언론이나 자국의 정치상황

3) 이오성 (2021),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2023년 7월 22일 검색)

4) 박준규 (2023), “한2030 ‘중국비호감’ 91% 압도적 1위... ‘미국 호감’은 6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96>. (2023년 7월 22일 검색)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보기도 한다(김희교 2022). 또한 이 상황에서 중국의 강한 국가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거나 애국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많다(전인갑 2016; 공봉진 2019; 김인희 2021; 류하이룡 2022 등). 이런 연구들의 학술적 의의와 공헌점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중국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에 대한 일상적 경험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사회를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존에 출판된 중국 관련 학술자료들을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하고, 온라인 공간의 자료들을 통해 일부 애국주의 활동과 백지시위의 추이와 전개를 파악하였다. 또한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내 정보제공자들과 비공식 면담을 수행하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평상시에 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대화 중 관련된 내용을 분석 자료의 일부로 활용하였다.

II. 자신감과 불안함: 중국 애국주의의 배경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국가 소속으로 살아가는 현재, 국가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 또는 전지구화의 경향은 전세계의 연결성을 강조하지만 연결성의 증대는 경계의 증식으로 이어지고 경계는 상호 차이의 인식을 만들어 낸다. 이 차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빗장의 강화 역시 전 지구화의 일면이다(메자드라·닐슨 2021). 이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의 대결과 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애국주의, 중화민족 중심의 국가주의적 태도가 부각된 것이 최근 들어 등장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특히 청년들의 애국주의적 사상과 애국주의 운동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사적 흐름의 일부였다. 1919년 외세에 대항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5·4운동이나, 1960년대 많은 열혈 청년이 참여한 문화혁명 역시 그 동기와 후과에 대한 평가를 잠시 접어놓는

다면, 모두 국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열망, 혹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국가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었다. 1989년 천안문에서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한 달 반 이상 시위를 벌였던 것 역시 1919년 5·4운동의 후계자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 과정이자 결과였다.

물론 애국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활동은 애국활동으로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반당, 반국가 행위로 치부되기도 했다. 청년들은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중국을 모욕하거나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외국을 공격하지만 그 공격은 중국 정부를 향한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19년 5·4운동은 일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난하였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은 이와 같은 시각이 정점에 달했고 (Fish 2015, 6), 당시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를 자신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여겼다. 천안문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청년들의 열망은 군대의 힘에 의해 재빠르게 냉각되었고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애국적 활동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선을 넘을 경우 그 파급력은 정부나 국가가 두려워할 정도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애국은 청년들의 혈기왕성한 외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당과 국가의 입장과 공명하면서 어떤 대상이 공동의 적으로 특정되는 순간 애국주의 활동이 발현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크고 작은 ‘공동의 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공격하는 ‘애국주의 청년’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미군기의 폭격 이후의 격렬한 반미 시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과정에서 일어났던 서울에서의 중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의 폭력적 충돌, 프랑스에 대한 반발과 까르푸 불매운동, 닌자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부터 2016년 트와이스 썬미 사건, 2020년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대만국기와 오성홍기가 함께 등장한 것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강한 불만, 단오나 한복과 관련한 여러 ‘논쟁’들, 2020년 맨플리트 시상식에서의 BTS의 발언에 대한 불만과 분노, 2021년 강제노동 의혹으로 신장의 제품과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등 수많은 애국주의 활동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

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가가 약해지면 미국이나 서구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애국주의적 입장이 인터넷에서 강조되기도 했다 (Zhao 2022).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상호 공격이 거세지면서 구옌무촨(孤烟暮蟬)과 같이, 소위 ‘쓰간우(自干五)’라 불리는 애국주의 기반 온라인 활동가들도 크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애국주의 분노청년’ 증가의 한 배경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들고 있다. 애국주의교육의 관주도 역사교육으로 인한 역사과잉이 많은 분노청년을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인희 2021, 362). 애국주의교육이라는 용어는 1956년 교육부가 반포한 <중국역사교학대강(中國歷史教學大綱)>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천안문 사건 이후 1991년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1994년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애국주의교육은 구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당의 기본노선과 사회주의 근대화 건설의 성과, 중국의 국정,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국방과 국가안전, 민족단결, 평화통일, 일국양 제방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오노데라 2020, 254). 시진핑 정부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넘어 더 이상 서구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신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기에 맞춰 2019년에 <신시대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新時代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통해 애국주의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애국주의교육법 초안>을 통해 애국주의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5·4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산당 지도에 입각한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신시대 중국 청년에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입신의 본분”이라고 함으로써(공보진 2019, 116) 애국이 곧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본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의 애국주의적 태도를 단순히 애국주의교육에 의한 결과로만 보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애국주의교육으로 인해 중국의 청년들이 ‘세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관점에 대해 중국의 청년들은 VPN 등을 이용해 중국의 만리장성 방화벽을 뚫고 외국의 정보까지 모두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해 “자유로운 시스템이 있다 해서 세뇌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

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자신들은 중국의 역사 중 가장 개방적이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는 의심스럽게 보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티베트라는 낙후한 땅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서구는 왜 그 노력을 무시하고 인권문제를 들먹이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한다. 중국이 개방을 하고 자유시장에 진출했는데 정작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를 정치적으로 막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한다(Osnos 2012, 29-34).

사실 중국의 청년들은 ‘강력한 국가,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커리어’의 결합을 삶의 주된 목표로 삼고 반복되는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지루함과,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여 보다 풍요롭고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고통을 견디며 지내고 있다(조문영 2012, 37-39). 이들에게 있어 애국주의는 ‘나를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식의 사회주의시절의 그것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되면 나의 삶도 잘못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현실주의적 태도가 가깝다.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중국의 국가적 위상과, 높은 건물과 풍부한 상품 등 경제발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은 과거 부모들에게 주입되었던 이상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강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교육을 통해 주입되기도 하지만, 능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국가가 위태롭고 불안정하다면 자신들의 미래마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바람에서 선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배경에는 변화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2009년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멕시코의 화인들 앞에서 “우리는 1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 문제에 대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한다.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았고 기아와 빈곤을 수출하지 않았고 외국을 괴롭히지도 않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던 바가 있다.⁵⁾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앞세운 시진핑의 중국몽은 과거 ‘도광양회

5) Astin Ramzy (2009), “A Chinese Leader Talks Tough to Foreigners”, <https://world.time.com/2009/02/13/a-chinese-leader-talks-tough-to-foreigners/>. (2023년 7월 12일 검색)

(韜光養晦)’의 태도에서 벗어나 힘을 과시하며 할 일을 하는 ‘분발유위(奮發有爲)’의 행보로 강한 중국을 과시한다(박민희 2021, 60). 중국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실감한 청년들은 이런 행보에 환호한다. 그러나 한편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함께 있다. 표면적으로는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물가와 집값, 취업에 대한 불안함, 여전히 빈곤한 농촌 등의 문제는 자신감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고 저변에 불안감을 감추어 놓는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 더욱 심한 사회적 통제에 집착하거나(삼보 2014, 27) 외교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태도로 날카로운 말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자신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전랑(戰狼)외교’의 양상이 나타난다(마틴 2023). 삼보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중국은 ‘불완전한 강대국’에 머물고 있다(삼보 2014, 37). 상샤오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왜 꼭 국가적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나요? 중국 담론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자기 생활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거대한 국가와 민족의 모자를 눌러써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2022, 128)

애국주의의 태도가 애국주의교육의 결과인지, 자신들 삶의 방식과 형편에 변화를 가져온 국가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지, 불안함을 상쇄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의 결과인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지도 모를 질타에 대한 대비로서의 자세인지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떤 하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 애국주의의 태도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 그와 함께 성장한 불안감,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전례없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인지 아닌지의 불확실함 사이에서의 진동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국가를 보호하며 국가의 불확실함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적 임무 안에 개인을 위치시킨다.

Ⅲ. 애국주의 활동과 국가의 시각화: ‘오빠 차이나(oppa China, 阿中哥哥)’의 사례

최근 중국의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장진호(長津湖)>(2021), <전랑(戰狼)2>(2017)와 같은 주선울 전쟁영화가 이 높은 흥행성적을 기록한 일이다. 개봉한 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두 영화는 현재까지 중국 역대 흥행 수입 1, 2위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2023년에도 <만강홍(滿江紅)>, <유랑지구(流浪地球)2> 등 강한 국가주의 영화들이 흥행의 선봉에 서 있다. 최근의 애국주의 영화들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강내영 2018; 김남희 2019; 周慧敏 2017 등) <장진호>를 포함하여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중국의 현대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역시 뛰어난 분석이 있으니(백지운 2023) 여기에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애국주의 스펙터클 영화들이 영화산업의 성장과 흥행을 견인한다는 사실은 애국주의 서사와 시각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주선울 영화가 없지 않았고 스펙터클에 기대는 서사 역시 낮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애국주의 스펙터클이 문화상품으로, 시각 이미지로 생산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이 영화들을 통해 중국의 관객 모두가 애국주의적 감정이 고양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그 애국주의가 불편했을 수 있고 일부는 그저 스펙터클에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애국주의적 서사의 경험이 국가주도의 주선울 영화를 의무 시청하던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자리잡았고 당분간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런 영화들의 개봉과 흥행이 이루어진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를 아이돌화하는 ‘팬덤 애국주의’(류하이롱 2022)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하다.⁶⁾

6) fandom nationalism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팬덤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민족적 단위를 넘어 국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팬덤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승희(2023, 126) 참고.

1. 디지털 애국주의와 ‘오빠 차이나’의 등장

2016년 1월 20일 새벽, “오늘 저녁 7시에 페이스북으로 출정하여 해협 건너편에 있는 타이완 동지들과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자”라는 글이 웨이보에 올라온 후 몇 시간 만에 중국 네티즌들은 규칙을 정하고 ‘우호적 대화’에 활용할 이모티콘과 ‘짤’을 만들어 대만의 유명인사들과 언론사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디바 출정(帝吧出征, #D8fb)’으로 알려진 이 애국주의 활동은 인터넷이 애국주의 활동의 효과적인 장소이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참여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이고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라는 시각, 즉 놀이로서의 애국주의 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을 알렸다(류하이롱 2022).

디바출정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대개 당시까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K-Pop을 포함한 대중문화 팬덤에 익숙한 여성들로 알려지면서 ‘샤오핀홍(小粉紅)’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들이 대중문화 팬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애국주의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운동이 시작된 이후이다. 중국 대륙 안에서는 ‘홍콩동란(香港動亂)’이라 불리는 홍콩에서의 시위가 점점 거세지면서 Jackson Wang 등 일부 연예인과 셀럽들이 홍콩 경찰에 대한 지지글을 인터넷과 SNS에 올렸고 이에 대해 홍콩 시위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공격하자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을 옹호하고 홍콩 시위 지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8월 17일을 필두로 몇 차례의 ‘출정’을 감행하였다. 소위 ‘아이중(izhong)’이라는 여성 중심의 애국주의 팬덤(飯圈女孩)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⁷⁾

출정 이후 ‘아이중’은 ‘중국이라는 이름의 오빠(阿中哥哥, oppa China)’를 좋아하는 팬들로서 ‘오빠 차이나’에 대한 아트워크 이미지, 밈, 음악, 애니, 영상, 서사, 팬픽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⁸⁾ 인터넷에서 이들이 만든 ‘오빠 차이

7) izhong이라는 용어는 ‘중국이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I는 영어로는 ‘나’이면서 중국어로는 ‘愛’를 의미한다. 이 뒤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이나 별칭을 넣어 팬덤을 만드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ihan, ikun 등). zhong은 中國을 의미한다.

8) ‘오빠 차이나’는 Chew(2023)가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나'의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하거나 손에 쥐고 있는 미소년 캐릭터로 표현되며 군복을 입고 있거나 ('홍콩 분리주의 자들'에 맞서)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주장부터, 중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리는 일종의 '주접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⁹⁾ 이들에게 있어 '오빠 차이나'는 "5000년 전 데뷔하여 14억 명의 팬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세가 기울면서 아들, 딸(대만과 홍콩)을 뺏겨 버렸고 이제는 그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 존재로 의인화되었다. 미국과의 갈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중국 비난에 대해 '아이중'들은 "아메이(阿美)가 오빠 차이나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며 "중국 오빠에게 붙지 말고 혼자 살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오빠 차이나' 관련 내용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CCTV, <런민르바오> 등의 관영매체에서도 '국가 앞에 다른 아이들은 있을 수 없다(#國家面前無偶像)', '우리 모두에게는 오빠 차이나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있다(#我們都有一個愛豆名字叫阿中)'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오빠 차이나'를 이용하거나 소개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들의 출정은 중국 당국이 금지한 사이트들에 접근하는 것[翻牆]이었기 때문에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관영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애국'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적 행위도 용인하는 공모적 태도로 '아이중'들과 연계했음을 보여준다.

2016년 디바출정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그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애국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익숙한 온라인 놀이 방식을 애국주의 활동에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중'들 역시 자신들이 익숙한 팬덤의 활동 방식을 애국주의 활동에 적용하였다(田夢 2020). 특히 국가를 의인화하고 이를 미소년 캐릭터로 시각화하는 것, 마치 팬픽처럼 공식 역사와는 전혀 별개인 서사들을 생산해 낸 것은 그동안 국가가 주도하던 엄숙한 국가주의의 체계모니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네티

여성 팬들이 남성 아이돌에 대해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했다. '아이중'들의 유사 팬덤 애국주의뿐 아니라 2016년 한한령 이후에도 중국에서의 팬덤 활동은 대개 한국 대중문화 팬덤에서의 활동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평진니 2021, 366) 이 글에서는 '오빠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9) '주접글' 또는 '주접멘트', '주접드립'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매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는 팬덤의 놀이 방식 중 하나이다.

즌들이 애국주의의 자발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적인 일로부터 ‘교묘한 방식으로’ 배제되어 왔던 젊은 여성들이 국제관계와 정치적 영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도 ‘아이중’ 활동의 의의이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의 활동이 쇠퇴하게 되는 이유 역시 이들이 젊은 여성이며 국가주의의 헤게모니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들이 흔들고자 했던 국가적 권위와 젠더적 질서가 사실은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 보여준다.

2. ‘오빠 차이나’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비판과 ‘아이중(izhong)’ 팬덤의 쇠퇴

2021년 말에서 2022년 중반을 지나면서 ‘아이중’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아이중’ 활동이 쇠퇴하게 된 원인의 일부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고 일부는 내부의 태도 변화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오빠 차이나’에 대한 팬덤은 기존의 팬덤 문화를 모방한 것인데 ‘오빠 차이나’라는 존재가 실제의 아이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점이 팬덤이 지속될 수 있는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제 아이들은 콘서트, 사인회, 앨범 발매 등 팬들의 기대를 부추기고 즐거운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국가라는 아이돌’이 팬들을 위해 그와 같은 이벤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이 팬덤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중’ 쇠퇴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뒤에서 보겠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중국이 강력한 봉쇄조치를 지속한 것에 대해 반감이 커지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과도한 봉쇄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봉쇄와 PCR 검사 이상으로 국가가 무엇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광광 2020 참고) 사회적 불안함이 증대하면서 ‘오빠 차이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심지어 ‘바이러스 오빠(阿冠哥哥)’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오빠 차이나’로부터의 태세 전환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국가에 대한 ‘아이중’들의 실망은 매우 컸다. Chew(2023, 92)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건들로 인해 ‘아이

중'들이 마음을 돌렸다고 지적한다: 1)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한 것, 2) 코로나로 인한 도시들의 봉쇄조치에 대한 반감, 3) 장쑤성 쉬저우(徐州)에서 발견된, 사슬에 묶인 여성 관련 사건과 관련한 정부와 언론의 태도, 4) 중국 사회의 페미니즘 비판과 여성에 대한 국가 정책과 담론들에 대한 불만. 앞의 두 가지는 특수한 사건이라 다시 등장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뒤의 두 가지로, 중국의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이중'들은 이를 통해 견고한 남성중심의 젠더 질서를 인지하게 되었고 가부장적 권위주의 국가와 결별하게 되었다.

사실 '아이중'은 팬덤 활동을 즐겨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폄하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애국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며 이들을 역사와 정치에 대한 판단력을 지니고 중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성들로 보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의 주체적 역량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성들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애국주의 경향의 한 웨이보 계정은 디바출정 며칠 후 "이들은 우리 딸이고 우리의 여동생이고 우리가 몰래 좋아했던 옆 반의 여자아이들이니 우리가 함께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¹⁰⁾ 이와 같은 시각은, 여성들을 보호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가부장적 시선의 연장이다. '오빠'와 같은 가족 용어의 사용은 단순히 가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성인과 아이, 남성과 여성 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 내 위계와 권력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이며 가족과 국가를 부양하는 남성 존재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Wang & Cheng 2023) '아이중'들의 대중적 애국주의는 중국 젠더 권력 관계에서 중속적 위치를 재확인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이 국가를 '모에화(萌え化)'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국가를 아이돌화하여 가볍게 보는 것은 국가의 여러 사안을 희석해 버릴 우려가 있으며¹¹⁾ 이를 주도하는 여성 중심 팬덤은 공동체성이 약하고 쉽게 와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비

10) 微博 (2016), “小粉紅是誰?”,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3935584040182300>. (2022년 8월 1일 검색)

11) 肖文鳳 (2020), “使用阿中哥哥表達愛國是否欠妥?”, <https://news.upc.edu.cn/info/1441/100469.htm>. (2023년 7월 26일 검색)

판한다. 또한 국가를 아이돌화하는 것은 국가를 친근하게 인식하도록 하지만, 과거 전 인민이 한 명의 우상을 좇다가 생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판 중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생각이 많지 않고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 대한 비평적 관점이 약하다는 여성혐오적 관점이다.¹²⁾

이처럼 ‘아이중’들의 활동은 국가에 대한 태도, 젠더와 세대, 대중문화 팬덤에 대한 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물론 ‘아이중’들의 애국주의 활동은 거의 쇠퇴했지만 그것이 애국주의 활동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중’의 활동은 여러 애국주의 활동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애국주의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상황이다. ‘아이중’들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애국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 놀이가 아닌 ‘진지함’ 접근이 필요하다는, 애국주의에 대한 정당성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태도에 기인한다.¹³⁾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과 같은 모습의 애국주의적 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더 진지하고 엄숙한 형태의 애국주의로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국주의가 덜 중요하다거나, 애국주의는 국가 주도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허위의식일 뿐이라는 생각만이 팽배하게 된 것은 분명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애국주의의 태도와는 다른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이다. 이전 같으면 거의 묻혀버릴 목소리들이, 물론 여전히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은 더 긴 시간 동안 들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清零政策)’과 도시봉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국가에 대한 애정보다 그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12) 嗶哩嗶哩 (2021), “小粉紅究竟是什么意思?”, <https://www.bilibili.com/read/cv10366536/>. (2022년 7월 16일 검색)의 글과 댓글들 참고; 知乎 (2022), “如何评价部分饭圈人士将中华人民共和国称作「阿中哥哥」的行为, 是否合适?”, <https://www.zhihu.com/question/348729698>. (2023년 7월 20일 검색)

13) 놀이가 ‘진지함’의 반대말은 아니다. 어떤 놀이는 아주 진지하기 때문이다(하위징아 2018, 40). 이전의 디바출정, 그리고 ‘아이중’들의 팬덤 애국주의가 놀이화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진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들의 놀이화된 애국주의를 진지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가치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애국주의를 위계화하여 어떤 애국주의는 폄하하고 어떤 것은 추켜세우는, 애국주의를 이용한 권력화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IV. 국가에 대한 불만과 항의: 코로나19와 백지시위

1. 백지시위의 전개와 시위 참여자들의 입장

2022년 11월 24일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100일 넘게 주거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주민들 중 10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11월 26일 난징 커뮤니케이션 대학(南京傳媒學院)에서 “인민 만세,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식을!(人民萬歲, 逝者安息)”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시작된 후 시안, 쓰촨 등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우루무치중루(烏魯木齊中路)에서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 상하이시 정부가 ‘우루무치중루’ 표지판을 잠시 떼어버리기도 했다. 이들은 아무 것도 적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 시위를 했고 이후 베이징, 산둥, 광둥 등 전국적으로 백지시위가 확산되었다.¹⁴⁾ 이들이 들고 나온 백지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전한 항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¹⁵⁾

집회 초기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밝히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몰리고 경찰이 우루무치중루 양쪽 끝을 봉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¹⁶⁾ 집회 초기에는 10월 베이징에서 등장했

14) 이들이 A4 용지를 들고 나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지시위를 ‘A4 Revolution’이라고 명명했다. 백지가 시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정치적 구호를 금지한 홍콩에서도 시위에서 항의의 상징으로 백지를 사용한 바 있다. Chang Che & Amy Chang Chien (2022), “Memes, Puns and Blank Sheets of Paper: China’s Creative Acts of Protest”, <https://www.nytimes.com/2022/11/28/world/asia/china-protests-blank-sheets.html>. (2023년 8월 5일 검색)

15) 端傳媒編輯部 (2022), “杭州湖濱銀泰悼念活動遭警力提前部署, 以民衆被帶走及清場告終”,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127-mainland-students-protest/>. (2023년 7월 20일 검색); 鄭昶人 (2022), “從負到零的中國抗議: 如果轉折點沒有來 是因為現在才是開始 - 眼下運動持續三天, 已經超乎所有人預期”,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128-opinion-china-protest/>. (2023년 7월 20일 검색)

던 “봉쇄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가 필요하다”는 구호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종신제 철폐(廢除終身制)” 같은 직설적인 구호도 등장했으며 ‘외부세력이 선동한다’는 비난을 의식하여 “나는 외부세력이 아니라 중국의 청년이다(我是中國青年不是外部勢力)”라는 구호도 등장하였다. “5·4정신!” “6·4정신!”이라는 구호도 등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4정신을 회복하자(光復六四)”는 구호로 변해갔다.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4운동과 천안문 사건은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국가를 비판한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백지시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공산당이나 시진핑 물러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완전한 동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런 구호에 놀라기도 했고 “그래도 공산당은 없어도 안될 것 같은데(不能不要)”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공산당이나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바로 얼마 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중국 사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정서를 시위 참여자들 일부는 공유하고 있었다.

시위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우루무치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래된 봉쇄정책 해제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모든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산발적이고 다양한 구호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요구였다. “인민에게 자유를!(人民自由)”이라는 구호가 제일 많았고 언론자유(言論自由, 新聞自由)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소리 내어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은 우루무치중루에서의 시위에서 처음 해본 일이었지만 사실 상하이 봉쇄 기간 중 마음속으로 수천수만 번 구호를 외쳤다고 하였다.

난징, 상하이, 시안 등지의 시위대들은 시위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가(國際歌)>와 국가인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을 부르기도 했다.¹⁷⁾ 금기

16) 상하이 우루무치중루 집회의 상황과 참여자들의 태도는 앞서 인용 표기한 여러 언론기사들과, 일부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팟캐스트를 종합하여 파악하였다. 不明白博客 (2022), “那些年輕的抗議者: 我們爲什麼要上街”, <https://www.bumingbai.net/2022/11/ep-027-china-protestors/>. (2023년 6월 25일 검색)

에 거의 근접한 구호들을 외치며 현재의 국가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도가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동원한 몇 가지 장치가 원래는 국가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애국주의와 비교하면, 같은 상징으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다. 많은 시위 참여자들이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들이 시위 과정에서 <의용군행진곡>과 같은 국가적 상징을 전유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복이나 혁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며 국가의 주인인 인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는 발언이다.

2. 누적된 불만들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 조국통일이라는 글을 올리던 나의 상하이 친구들은 모멘트에 백지시위 소식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전해주었다. 한 친구는 “중국 사람들은 판다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미국이 자꾸 중국은 전쟁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런 건 문제다. 나는 중국이 좋다. 그런데 상하이가 오래 봉쇄되고 자꾸 이것저것 검사도 해야 하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크다. 나는 무엇보다 (이제 유치원을

17)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가>는 공산주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노래로 지금도 당과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거나 불린다. <인터내셔널 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또 있다. 상하이 정안취(靜安區)의 동바콰이(東八塊) 도시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대상자들은 말뿐인 주거보장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고 이주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적 상징과 정치적 유산을 전유하여 활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앞에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법 공부 모임’을 조직하여 주거, 철거, 권리 등에 대한 공부를 했다. 공부 모임 시작 전에는 <인터내셔널 가>와, 파시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내용의 1943년 노래인 <단결은 우리의 힘(團結就是力量)>을 부른다. 법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한 남성은 “우리의 정부는 중국이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공부 모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Shao 2013, 163). 철거를 앞둔 집앞에 걸어놓은 오성홍기는 여러 역할을 한다. 이 때의 국기는 애국의 의미가 아니라 ‘과연 국가가 미래도 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상징이다. 국가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국민인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데 국가의 대표적 상징인 국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정치의 복잡성이 나타난다.

다니기 시작한 그의 딸) M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크다. 전염병 같은 것이 또 있을텐데 그때도 이렇게 가뒀놓는 것으로 해결할까?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며 봉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다. 중산층의 ‘평범한 애국주의자’들조차 불안과 걱정, 약간의 불만들이 없지 않다.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와 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듣기는 어려웠던 말들이 곳곳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터져 나오고 이런 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듣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 코로나19가 중국에 큰 위기이자 도전이었던 것은 사실이다(백영서 2021 참고). 2020년 우한을 시작으로 거의 3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주거 단지 단위로, 혹은 도시 전체 단위로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애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를 믿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쪽에서는 불만이 겹겹이 누적되어 왔다. 백지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우루무치의 화재사건이었지만 9월 18일 구이저우(貴州)에서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였음에도 격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새벽 2시에 격리장소로 가던 버스의 전복사고로 2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한 사건, 상하이 봉쇄된 후 증가한 고층 아파트에서의 자살사건들, 그리고 3년 동안 경험한 ‘불확실한 전망’ 등이 자극제가 되어 자유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 시위 참여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모호한 채 남아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를 인용하며 “진상 배후의 진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이라고 국가와 당, 정치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억압적인 정치에 대해, 개혁개방 이후에는 개혁과 개방의 혜택으로부터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베이징 다잘란(大柵欄) 지역의 ‘하층사람들(社會底層)’은 자신들이 살아온/살아가고 있는 중국에서 자신들을 매일매일의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은 국가 시스템과, 그들이 “저 위쪽 사람들(上面)”이라는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 가끔은 그러려니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분노하기도

한다. 그들은 개혁개방 이후 과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주거환경과 위생상태, ‘심리불안’은 여전한데 국가가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공식 역사가 1949년의 ‘해방’과 그것의 정치적·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다잘란 지역 노인들은 그 시기를 가난, 고통, 폭력의 시대로 기억한다. 특히 대약진운동 시기의 3년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또한 문화혁명 시기는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남긴 혼돈의 시대였고 무서운 시기였다. 개혁개방 이후의 건설 붐으로 노동자 일도 하고 행상 일도 할 수 있었으니 그 혜택이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은 경제개혁의 효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2008년 올림픽을 앞둔 몇 주 동안은 주변 지하철 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었고 2009년 국경일 행사 때에는 집에서 나갈 수조차 없었다. “저 위쪽”은 주거문제, 건강과 배고픔 등의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불길한 힘이다(Evans 2020).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 뿐 아니다. 상하이에서 도시 재개발로 인해 살던 집이 철거 대상이 된 사람들(Shao 2013), 대도시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는 민공과 그들의 자녀들(Ling 2019),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Cho 2013), 그리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재교육’ 대상이 되는 신장의 위구르 사람들(바일러 2021)이 있고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백지시위를 통해 폭발한 불만은 14억 인구 중 극히 소수에 의해 벌어진 일이고, 그것도 대개 도시의 학생이나 청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항복’을 바라는 일부 서구의 시각처럼 중국 자체를 뒤집어놓을 일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일도 분명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애국주의에 가려져 있었으나 결코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없는 국가와 당, 정부와 정치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들이 가시화되는 임계점 근처에 가까이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V. 자격증명으로서의 애국주의 vs. 국가 가치에 대한 질문

사실 국가에 대한 태도를 한두 가지의 유형으로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하다. 국가에 대해 애국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없고 한 개인이 때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여러 사안에 대해 동시에 여러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애국의 반대가 저항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주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대 중국에서의 국가에 대한 태도를 애국 아니면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 국가에 대해 나타나는 상이한 태도와 관련하여 저변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단위와 인민공사를 통해 국가와 연결되는 사회주의의 노동하는 인민이었다가, 개혁개방 이후 이런 조직들이 해체되면서 개인은 국민국가의 구성단위로서 국가에 직접 연결되었고 국가는 단위와 인민공사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국가의 관리 책임 강화는 고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인 감시체계와 사회 신용제도의 도입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의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가지타나·다카구치 2021, 146).¹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공성’이 누구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라는 것이 ‘공공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란 이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

18) 이와 관련하여 항미원조의 담론 변화를 추적한 백지운 역시 2020년대 이후 “인민은 정치적 주체에서 당의 영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원의 대상으로, 나아가 당의 보살핌 속에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소시민으로 거듭 축소 재해석”되었으며 “인민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지위는 탈각되었고, 인민을 중심에 두는 당과 인민의 관계 역시 당의 영도를 앞세우는 구조로 전도되었다”(2023, 209)고 하였다.

는 것이다. 애국주의란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분노청년’, ‘애국주의 청년’, (젊음 혹은 어리다는 뜻을 포함하는) ‘샤오편 흥’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동안 애국주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청년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일부 집단에게 위구르 청년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겨져, 분리되어 ‘교육’받을 대상이지 애국주의 청년에 포함되는 존재들은 아니다.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바쁜, 그러나 출신 때문에 정당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민공 2세대들 중 일부는 애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핀처 2020)이나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젊은이들 역시 애국주의 청년이라는 범주와는 멀리 있는 존재들이다.¹⁹⁾ 그들이 애국주의 청년이라면 체포, 감금, 투옥, 실종 등의 단어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애국주의 청년은 중국의 청년 내부에 존재하지만 그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구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애국주의는 국가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경도된 애정의 표현만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로부터 ‘우리 편’을, 그리고 우리 편 안에서도 일부를 구별해내는 장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는 일종의 ‘자격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절 등 중요한 시점에 아이돌이나 셀럽에게 기대하는 애국주의적 발언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도발’에 한 마디씩 거드는 것, 공격하는 타자에 재반격을 함으로써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등은 모두 이 자격증명의 과정이자 증표이다. 애국주의적 발언은 그것의 내용보다 발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발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 공명할 준비가 이미 갖춰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특정 시점이나 어떤 상황에서 공식처럼 정해진 특정 내용을 담은 발언이 등장할 것이며 등장해야만 한다는 대중적 믿음과 기대가 있다. 그것이 마침내 실현되었을 때 “역시, 그래야지”라는, 대중들의 믿음과 기대의 충족과 만족은 애국주의라는 정동(affect)이 만들어내는 공모의 확인이자 상징적 완성이다. 이로써 애국주의적 발화, 남성-아이돌화 된 국가에 대한 팬덤은 현대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임을 주장하는

19) 박민희(2021)가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자격증명의 의례가 된다.²⁰⁾ 1920년대 조지 오웰이 버마에서 총을 든 백인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꼈던 것처럼(스콧 2020, 41-42) 국가주의가 강한 국가 안에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애국주의, 혹은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한 상태이다. 내 자신이 열성적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처럼’ 보여야 할 의무조차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는 애국주의자가 ‘된다.’

백지시위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되었던 최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자격증명이 과연 가치있는 것인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증명해야 할 만한 가치를 국가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조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한다(祖國的利益高于一切)’는 이데올로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는 것이다. 한 백지시위 참여자는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정치나 국가 문제, 국제관계 등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굳이 분류하자면 ‘평범한 애국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홍콩에서의 상황을 보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내의 불공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생겨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인민들이 죽어나가고 인민들이 소리치는데 왜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가?”라며 국가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당과 국가가 전면에 위치하고 인민은 수동적 지위로 전락한 것에 대한 불만, 애국이라는 자격증명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보다 먼저 국가가 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지시위 과정에서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것과, “노예로 살지 않고 공민으로 살겠다(不做奴才做公民)”라는 구호를 통해 표현되었다.

애국주의 활동과 백지시위 모두 ‘좋은 국가’에 대한 기대의 결과이다. 다만 무엇이 좋은 국가인가라는 지향의 차이가 양자를 구분해낸다. 애국주의에서는 강한 국가에 대한 전망이 동력이라면 백지시위는 국가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그 배경이 된다. 또한 둘 다 분노에 기반하고 있으나 애국주의는

20) 여기에서 사용한 정동이라는 개념은 브라이언 마수미가 말하는 것처럼 ‘시종일관 힘(power)에 연관된 개념’(마수미 2018)으로, 어떤 흐름으로 개인을 관통하며 서로 공명시키는 감각의 지속(스튜어트 2022)을 의미한다. 한편 빅터 터너, 반 제네프 등에 의해 정교화된 의례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공동체가 보유한 가치들과 질서들을 반영하고 전승”한다는 한병철(2021, 8)의 설명을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분노의 대상을 중국을 공격하는 외부에서 찾는다면 백지시위에서는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되었다. 백지시위 과정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왜 우리나라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我們的國家爲什麼變成這個樣子?)”라며 울분을 토했다.

VI. 나가는 글

애국주의와 백지시위는 모두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현재의 중국에서 국가에 대해 한 가지 동질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양자는 불균형적인 위치에 있다. 지금과 같이 정책, 법규, 테크놀로지 등을 통해 국가가 인민들에 대해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백지시위를 통해 표출되었던 국가에 대한 시각이 헤게모니를 획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백지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그렇다고 혁명이나 전복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 시위 참여자는 “중국의 시위가 더 세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외의 ‘반중국인사(反華人士)’들에 대해 “그들은 멀리서 자판이나 두드리고 있다. 그들은 중국 국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모른다”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빅데이터로 감시받고, 인터넷은 검열되고, 돈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무슨 혁명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위치, 관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강하게 이야기하는 샤오편홍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봉쇄가 해제되면 아마 큰 변화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실제 현재의 상황은 그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일상은 아닐 것이라고 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큰 일, 예를 들어 ‘시진핑 하야(阿平下台)’ 같은 것은 보통사람들이 해내기 어렵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일들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는 것, 아이를 낳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항의’의 일종이다. 이런 것은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한다. 백지시위 이후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깨고(清醒) 적어도 ‘(국가의 행위 중)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택할 수는 있게 될 것 같다.”

한때 탕핑(躺平) 역시 청년들이 ‘선택’한 저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위 시위 참여자의 이야기는 탕핑의 유행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존재는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주체적 입장의 강조가 탕핑과 백지시위를 이어준다.

온라인에서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을 공격적으로 보는 어떠한 시도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집단적 응징’을 감행하면서 국경일에는 축하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자유를 억압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여기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현재의 중국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관련한 지배적 태도는 있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태도였던 적은 없다. 국가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태도들이 있고 이것이 불균형적이기는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동력이 변화를 견인하는 힘이 될 것이다.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이라는 개념들을 고려하여 중국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2021).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디지털기술과 선택 설계로 만든 ‘멋진 신세계’』. 박성민 역. 놀와.
- 강내영 (2018). “중국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 연구: 특수부대 전량2(2017), 홍해행 동(2018)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제41호, pp. 319-351.
- 공봉진 (2019). “중국 ‘신시대 애국주의’에 관한 연구: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권. 제4호, pp. 109-145.
- 김남희 (2019). “<유랑지구>, 애국주의를 유랑하다.” 『중국문화연구』. 제46호, pp. 185-204.
- 김인희 (2021).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청년』. 푸른역사.
- 김희교 (2022). 『짱깨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보리.
- 대런 바일러 (2021).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중국의 첨단기술 형벌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착취의 기록』. 홍명교 역. 생각의 힘.
- 데이비드 샴보 (2014). 『중국, 세계로 가다: 불완전한 강대국』. 박영준·홍승현 역. 아산정책연구원.
- 러쉬 도시 (2022). 『롱 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박민희·황준범 역. 생각의 힘.
- 류하이룽 편 (2022). 『아이돌이 된 국가: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족주의』. 김태연 외 역. 갈무리.
- 리타 홍 핀처 (2020).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윤승리 역. 산지니.
- 박민희 (2021).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 한겨레출판.
- 백영서 편 (2021).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책과함께.
- 백지운 (2023).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 브라이언 마수미 (2018). 『정동정치』. 조성훈 역. 갈무리.
- 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2021). 『방법으로서의 경계: 전지구화 시대 새로운 착취와 저항 공간의 창출』. 남청수 역. 갈무리.
- 상샤오 (2022). 『주변의 상실: 방법으로서의 자기』. 김유익 외 역. 글항아리.
- 오노테라 시로 (2020). 『중국 내셔널리즘: 민족과 애국의 근현대사』. 김하림 역. 산지니.

- 요한 하위징아 (2018).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 이승희 (2023). “한중 MZ 세대의 ‘감성 애국주의.’” 『중국문화연구』. 제59집, pp. 113-132.
- 전인갑 (2016). 『현대 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학교방.
- 정희욱 (2022). 『한 번은 불러보았다: 짱깨부터 푹남아까지, 근현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멸칭의 역사』. 위즈덤하우스.
- 제임스 스콧 (2020).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대본』. 전상인 역. 후마니타스.
- 조문영 (2012). “중첩된 시간성과 벌이는 협상: 중국 동북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속물성에 대한 인류학적 변명.” 『한국문화인류학』. 제45권. 제2호, pp. 37-76.
- 캐슬린 스튜어트 (2022). 『투명한 힘: 꿈, 유명 혹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 신해경 역. 밤의책.
- 광광 (2020). 『우한일기: 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기록』. 조유리 역. 문학동네.
- 평진니 (2021). “대륙언니들이 왔다: 중국 한류 팬덤의 한국 이주.” 조문영 편.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pp. 359-386.
- 피터 마틴 (2023). 『중국의 시민군대: 전랑 외교군의 탄생』. 김유철·김영옥 역. 박영사.
- 한병철 (2021). 『리추얼의 종말: 삶의 정치 없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대호 역. 김영사.
- 한청훤 (2022).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사이드웨이.
- Chew, Matthew Ming-tak (2023). “Cybernationalist Authoritarianism: Fangirls’ Peer Production of the Virtual Celebrity ‘Oppa China.’” *China Information*. Vol. 37. No. 1, pp. 75-99.
- Cho, Mun Young (2013).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Evans, Harriet (2020). *Beijing from Below: Stories of Marginal Lives in the Capital’s Cent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ish, Eric (2015). *China’s Millennials: The Want Gener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ing, Minhua (2019). *The Inconvenient Generation: Migrant Youth Coming of Age on Shanghai’s Ed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Osnos, Evan (2012). “The New Generation’s Neocon Nationalists.” Angilee Shah & Jeffrey Wasserstrom (eds.). *Chinese Characters: Profiles of Fast-Changing Lives in a Fast-Changing 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5-39.
- Shao, Qin (2013). *Shanghai Gone: Domicide and Defiance in a Chinese Megac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Wang, Clyde Yicheng and Zifeng Chen (2023). "From 'Motherland' to 'Daddy State': A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Gender Undertone in China's Nationalist Discourse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9. No. 2, pp. 751-767.
- Zhao, Xiaoyu (2022). "Chinese Nationalis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iliatory and Confrontational Discourse." *Nations and Nationalism*. pp. 1-20.
- 田夢 (2020). "阿中哥哥'形象建构: 网络民族主義發展与正名化." 『新媒体研究』, 4期, pp. 92-95.
- 周慧敏 (2017). "〈戰狼2〉: 愛國主義的弘揚与男性氣質的彰顯." 『視听』, 第10期, pp. 43-44.

2. 기타

- 박준규 (2023). "한2030 '중국비호감' 91% 압도적 1위... '미국 호감'은 6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96>. (2023년 7월 22일 검색)
- 이오성 (2021).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2023년 7월 22일 검색)
- Astin Ramzy (2009). "A Chinese Leader Talks Tough to Foreigners." <https://world.time.com/2009/02/13/a-chinese-leader-talks-tough-to-foreigners/>. (2023년 7월 12일 검색)
- Chang Che and Amy Chang Chien (2022). "Memes, Puns and Blank Sheets of Paper: China's Creative Acts of Protest." <https://www.nytimes.com/2022/11/28/world/asia/china-protests-blank-sheets.html>. (2023년 8월 5일 검색)
- 端傳媒編輯部 (2022). "杭州湖濱銀泰悼念活動遭警力提前部署, 以民衆被帶走及清場告終."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127-mainland-students-protest/>. (2023년 7월 20일 검색)
- 微博 (2016). "小粉紅是誰?"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3935584040182300>. (2022년 8월 1일 검색)
- 不明白博客 (2022). "那些年輕的抗議者: 我們爲什麼要上街." <https://www.bumingbai.net/2022/11/ep-027-china-protestors/>. (2023년 6월 25일 검색)
- 鄭昶人 (2022). "從負到零的中國抗議: 如果轉折點沒有來 是因爲現在才是開始 - 眼下

- 運動持續三天, 已經超乎所有人預期。”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128-opinion-china-protest/>. (2023년 7월 20일 검색)
- 知乎 (2022). “如何評價部分飯圈人士將中華人民共和國称作「阿中哥哥」的行爲, 是否合适?” <https://www.zhihu.com/question/348729698>. (2023년 7월 20일 검색)
- 肖文鳳 (2020). “使用阿中哥哥表達愛國是否欠妥?” <https://news.upc.edu.cn/info/1441/100469.htm>. (2023년 7월 26일 검색)
- 嗶哩嗶哩 (2021). “‘小粉紅’究竟是什麼意思?” <https://www.bilibili.com/read/cv10366536/>. (2022년 7월 16일 검색)
- 韓大狗 (2022). “北京四通橋抗爭: ‘有聲音’比‘大多數’更有質的意義。” <https://theinitium.com/article/20221019-opinion-china-stonebridge/>. (2023년 7월 2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3년 08월 16일 |

| 논문심사일 : 2023년 08월 22일 |

| 게재 확정일 : 2023년 09월 14일 |

| ABSTRACT |

Perspectives to the State in Modern China: Case Study of Fandom Patriotism and ‘A4 Revolution’

Eungchel Lee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attitudes towards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focusing on patriotic activities and ‘white paper protest’ (so-called ‘A4 revolution’) that occurred in various cities in 2022. Since the mid-2020s, China has witness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atriotic activities based on a strong confidence in the country’s recent development. Particularly young women well-versed in popular culture fandom organized “fandom patriotism”, wherein they appropriated popular culture fandom techniques to idolize PRC and to visualize the state as an attractive male figure. However, accumulated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e after COVID-19 and criticism from patriarchal authoritarianism led to a decline in fandom patriotism.

Meanwhile,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e grew and exploded as COVID-19 pandemic spread and lockdowns were imposed on many Chinese cities. Following the fire accident in Urumqi, commemorative gatherings were held in major cities such as Nanjing, Shanghai, Beijing, and Guangzhou leading to protests expressing discontent with the government and the state. The protesters strongly voiced their desire for freedom and even shouted “CCP Step Down!” and “Chairman Xi Resign!”

Patriotism, which considers the state as an object of affection, serves as a credential that distinguish us from ‘the other.’ On the other hand, the ‘white paper protest’ questions whether the state deserves affection and whether the ideology of “Benefit the motherland above All” is right. Both

are shaped by expectations of a 'good nation', but they differ in their orientation to what constitutes a good nation. While patriotism is driven by the vision of a strong state, the 'white paper protest' is fueled by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with the state.

There are various ideas and attitudes towards the state, and the dynamics they create in interaction, however unbalanced, will be the force that drives change. We need to pay attention how th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will change and what a phase they bring.

- Key words: Fandom Nationalism, A4 Revolution, COVID-19, 'Oppa China', Affect